

[론평원 관찰]

여러 민족 군중들 중화문화 인정을 증강해야

여러 민족 문화는 중화문화의 백화원에서 활짝 피어나 중화문화가 날로 광채를 뿌리게 함으로써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하는 데 풍부한 자양분을 제공해주고 있다.

문화의 힘을 충분히 활용하여 여러 민족 군중이 알맞은 환경에서 은연중에 중화문화 인정을 증진하도록 함으로써 동고동락하고 영육, 생사와 운명을 같이하는 공동체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얼마전, 중앙민족대학 무용학원 원장인 강철홍이 연습실에서 군무〈분등(奔騰)〉을 리드하는 쇼트폼(短视频) 장면이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구었다. 비록 그날 강철홍은 일상복 차림이었으나 그가 추는 몽골족무용은 시원시원하고 호방하며 그윽한 정취로 넘쳤는바 네티즌들로부터 “일거수일투족에서 예술의 매력을 발산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욱 사람을 의아하게 한 것은 이 경전무용의 제 5대 리더인 강철홍은 몽골족이 아닌 조선족이며 이 무용을 창작하고 안무한 교수 마약은 화족이라는 것이다. 여러 민족 문화의 융합과 교류가 풍성한 예술의 열매를 맺고 기나긴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중화문명은 두드러진 포용성을 가지고 있다. 습근평 총서기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중화문명은 종래로 단일문화로 다원문화를 대체하지 않는바 다원문화가 모여 공동문화를 이룬다.” 여러 민족 문화가 서로 어울려 빛나면서 중화문화는 세월이 흐를수

록 날로 새로워져 우리의 강대한 문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

“문화 인정은 가장 심층적인 인정이다.”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함에 있어서 한가지 중요한 방면은 바로 여러 민족의 광범한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고 중화민족의 공동한 정신적 터전을 끊임없이 구축하며 여러 민족 군중의 중화문화 인정을 지속적으로 증강하는 것이다.

여러 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는 모두 중화문화의 구성부분으로서 중화문화는 주간이고 여러 민족의 문화는 지엽이다. 뿌리가 깊고 주간이 튼튼해야 가지와 잎이 무성할 수 있다. 또한 가지와 잎이 무성해야 주간이 생기로 차넘칠 수 있다.

일전에 까자흐족 생활과 문화를 반영한 드라마〈나의 아라타이〉가 국내에서 환영을 받고 해외에서도 각광을

점을 찾을 것을 필요로 한다. 습근평 총서기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여러 민족 군중의 상감식 사회구역을 건설하는 것은 여러 민족 군중의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경로이다.” 운남 곤명 성고대성사회구역에는 한족, 회족, 이족, 백족 등 20 여개 민족 주민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해마다 이웃집 백가연(百家宴), 화불절, 취미운동회 등 문화체육행사가 그칠 새 없고 이웃끼리 한집안처럼 오손도손 지내고 있다.

이로부터 사회구역은 감정을 증진하고 단결을 촉진하는 효과적 물리공간이며 더우기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육성하는 옥토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오늘날 여러 민족 군중들의 정보에 대한 교류, 문화에 대한 체험이 많이는 네트워크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내야 한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인터넷을 중시하고 잘 활용해야 함을 제시해주는바 네트워크 가상공간이 여러 민족 공동의 정신적 터전으로 되게 하여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립하는 최대 증량으로 되게 해야 한다.

문화의 힘을 충분히 활용하여 여러 민족 군중이 알맞은 환경에서 은연중에 중화문화 인정을 증진하도록 함으로써 동고동락하고 영육, 생사와 운명을 같이하는 공동체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한다면 반드시 민족단결진보의 최대 동심원을 그려내어 여러 민족 군중이 하나같이 마음과 힘을 모아 함께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하도록 추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인민넷

여러 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는 모두 중화문화의 구성부분으로서 중화문화는 주간이고 여러 민족의 문화는 지엽이다. 뿌리가 깊고 주간이 튼튼해야 가지와 잎이 무성할 수 있다. 또한 가지와 잎이 무성해야 주간이 생기로 차넘칠 수 있다.

새시대에 들어서 문화유산 보호 전승을 강화해 소수민족 특색을 지닌 문화자원을 잘 활용하던 데로부터 일대일 방조 부족에 힘입어 부동한 지역의 부동한 민족문화교류를 촉진하고 나아가서 소수민족 문화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기까지... 실무적 조치, 효과적 행동은 민족단결의 근맥을 튼튼히 구축함으로써 여러 민족 인민들이 석류알마냥 뽕뽕 뭉치게 했다.

받으면서 중화문화의 매력을 감수하는 하나의 창구로 되었다. “민족적인 것이야말로 세계적인 것이다.” 여러 민족 문화는 중화문화의 백화원에서 활짝 피어나 중화문화로 하여금 날로 광채를 뿌리게 함으로써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하는 데 풍부한 자양분을 제공해주고 있다.

문화 인정을 증진하고 민족단결을 촉진하려면 일상생활에서 사업 착수

■ 고성에 기디 ■

한눈에 바라보는 천년의 력사, 하북 정정 고성

하북성 정정(正定) 현의 옛 이름은 상산(常山), 진정(真定)으로 한때 북경, 보징과 함께 ‘북방 삼웅진(三雄鎮)’으로 불렸다. 여기서는 첫눈에 반할 천고의 아름다움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찬란한 력사 문화

정정의 력사건축물은 ‘아홉왕조 대가 끊기지 않으며(九朝不斷代)’ 중국에서도 보기 드문 귀중한 옛 건축군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축가 랑사성은 ‘고대 건축예술의 보고’라고 평가했다.

개원사의 종루는 국내에 현존하는 유일한 당나라 시대 종루다. 종루에 걸린 고풍스러운 동종은 무려 1천년 동안 떨어지지 않아 놀라움을 자아낸다.

개원사 남유적지에서는 당, 오대, 북송, 금, 원, 명, 청 등 7대 왕조의 유물 7천여점이 출토됐다. 고고학 현장에는 유적지 광장이 조성돼 정정의 과거를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다.

하북성문화고고연구원 박사 책봉비는 “개원사 남유적지는 전형적인 고금 중점형 도시 유적으로 6년에 걸친 고고학 작업을 통해 당-명청 시기 고성의 발전 맥락을 설명하는바 고금 중점형 도시 고고학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룽허사에 들어서면 건축·조각·벽화 예술이 어우러진 마니전에 ‘동양의 아름다움의 신’이라 불리는 도좌관음이 느긋한 자세로 남쪽에 앉아 북쪽을 바라보고 있다. 어느 방향에서 그를 보든 뽐내지 게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모양새다.

룽허사 대비각에는 중국에서 현존하는 가장 크고 오래된 구리 주물 입불상인 천수천안관음 동상이 있다. 당시 송태조 조광윤이 명해 제작한 대비보살 동상은 높이 21.3미터로 4년에 걸쳐 완성돼 장인의 창의성을 드러냈다.



▲ 정정현 남성문 야경



▲ 정정현 연조남대가 야경

◇해외 교류의 증거

양화루에 오른 건축가 랑사성은 로마 콘스탄티누스 개선문보다 더 장엄하다며 치켜세웠다.

700여년전, 이팔리아 탐험가 마르코 폴로는 이곳을 ‘위대하고 고귀한 도시’라고 평가했다.

정정고문화연구회 비서장인 우평란은 “당시 마르코 폴로가 정정을 방문했을 때 이곳의 견직물이 매우 발달해 유럽에 널리 팔리고 있다고 언급했다.”면서 “이팔리아 귀족들은 앞다투어 이곳의 견직물을 사고 싶어했

다.”고 말했다.

송나라 때 일본인 승려 에이사이는 이곳에서 류학한 후 립제 불교의 가르침을 일본으로 전파했다. 지금도 이곳에는 일본 불교계의 교류 방문이 잦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립제사와 징령탑은 중국인과 외국인들간의 우호를 강화하는 연결고리가 되었다.

◇과거와 현재, 외국과의 융합

“유명한 려행지답게 화기에애한 분위기와 매력적인 야경이 특징입니다. 게다가 이곳 사람들은 매우 친절하죠.” 석가장 사람인 장운소는 정정에 대해 얘기하자 자부심에 가득찬 목소리로 말했다.

장운소의 남편 일리아는 까자흐스탄 출신이다. 이들은 15년전 북경에서 만나 사랑을 키워 정정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이곳에 삶의 터전을 마련했다.

“정정은 최근 몇년 동안 발전이 매우 빠르지만 여전히 고풍스러운 건축양식을 유지해 력사가 눈앞에 펼쳐진 느낌입니다.” 일리아는 류창한 한어로 이곳에서는 외지인을 허물없이 대해준다고 표현했다.

“이곳 지방정부는 주민에게 큰 복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레를 들면, 도시 전체에서 무료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음수대가 있으며 심지어 일부 관광지는 입장료를 받지 않죠.” 일리아의 말이다.

“공원 산책도 즐기고 어르신들과 이야기하기도 좋아합니다. 이를 통해 삼국연의의 상산 조자룡 등 중국 문화를 많이 배울 수 있죠.” 일리아는 중국에서 대학을 다니며 중국어를 전공했다. 현재 독학으로 〈시경〉을 공부하고 있는 그는 “먼저 배워서 아들에게 가르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까자흐스탄에 있는〉가족들도 곧 이곳에 와서 함께 살 것입니다. 가족이 있는 곳이 바로 제집이죠. 저는 정정 사람입니다.”

/신화넷

우리의 명절과 기념일



칠석의 유래와 풍속

- 신기덕 -

칠석의 어원에서 칠(七)은 7월 7일의 날자를 이르는 말이고 석(夕)은 저녁을 뜻한다. 칠석절은 우리 나라의 전통 명절로서 고대 중국의 천문 성주 숭배 특히 견우와 직녀 성주와의 연관성에서 유래되었다. 전설에 따르면 칠석절은 견우와 직녀의 이야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한다.

견우는 인간 세상의 가난한 청년으로 소를 방목하며 살아갔다. 어느 날 그는 야외에서 비단을 짜고 있는 천제의 딸 직녀를 만나 그녀의 아름다움에 한눈에 반한다. 견우는 직녀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정성과 선량함으로 직녀를 감동시키고 그녀와 부부를 맺는다. 그러나 천제는 이 사실을 알고 격노하여 직녀를 속세로 내려보내고 견우에게 매일 하늘가에서 방목하라고 명령한다. 그리하여 견우와 직녀는 매년 음력 7월 7일에만 잠깐 만날 수 있었다.

이 전설과 조선민족의 칠석절 전설은 약간 그 색깔이 다르다. 조선민족의 칠석절 전설은 다음과 같다. 옛날 옛적에 옥황상제가 다스리는 하늘나라 궁전의 은하수 건너편에 부지런한 목동인 견우가 살고 있었다. 옥황상제는 견우가 부지런하고 착하여 손녀인 직녀와 결혼을 시켰다. 그런데 결혼한 견우와 직녀는 너무 사이가 좋아 견우는 농사일을 게을리하고 직녀는 천 짜는 일을 게을리했다. 그러자 천제의 현상이 혼란에 빠져 사람들은 천재와 기근으로 고통을 받게 되었다. 이것을 본 옥황상제가 크게 노하

여 두 사람을 은하수의 랑쪽에 각각 떨어져 살게 하였다.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서로 애만 태울 수밖에 없었다. 그들 부부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게 된 까마귀와 까치들은 해마다 칠석날에 이들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 다리를 놓아주니 이것이 바로 오작교(烏鵲橋)였다.

칠석절은 원래 견우와 직녀의 사랑을 기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직녀를 직물의 녀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녀성을 위한 날이었다. 이 명절에 녀자들은 직녀에게 지혜와 재주를 구걸하며 원만한 인연을 맺기를 기원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칠석절의 풍속 활동은 바느질하기, 천 짜기 등 지혜와 재능을 배우는 활동을 포함하여 풍부하게 발전했으며 이러한 활동 자체는 또한 녀성들의 다양한 시도와 기대를 반영하여준다.

시간이 흐르면서 현대적 의미의 칠석날은 사랑과 결부되어 사랑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명절로 되었다. 지금 칠석절은 ‘중국련인절’로 불리는데 현대 사람들의 더 나은 삶과 사랑에 대한 열망을 반영해준다.

모두가 말하면 칠석절은 전통적으로 견우와 직녀의 사랑을 기리는 명절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풍속 행사가 어우러진 복합적인 명절로서 지혜, 재능, 사랑 등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다. 중국 각지의 칠석절 풍속은 각기 다르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시하고 전달한다는 점에서만은 공동성을 띠고 있다.

중국민요전시공연 흑룡강 계서에서



중국민요전시공연 ‘동방서곡, 흥가 우렁차네’가 일전 흑룡강성 계서시에서 펼쳐졌다. 전국의 11개 성(자치구)에서 온 40여명 민요가수가 한자리에 모여 각지의 민족특색이 짙은 민요를 목청껏 불렀다. 3만여명의 관중들이 현장을 찾았다.

계서시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왕소는 “계서는 ‘석탄의 도시’, ‘석목의 도시’이다. 광활한 흑토지, 풍부한 대곡장은 우리에게 풍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었다. 속신문명, 향련정신, 북대황정신은 이 영웅의 도시의 정신적 기둥이 되어 주었다. 더불어 민가와 흥색가요도 여기에서 대대로 전승되었고 향련의 전설도 여기에서 전해지고 있으며 전통문화도 여기에서 전승, 고양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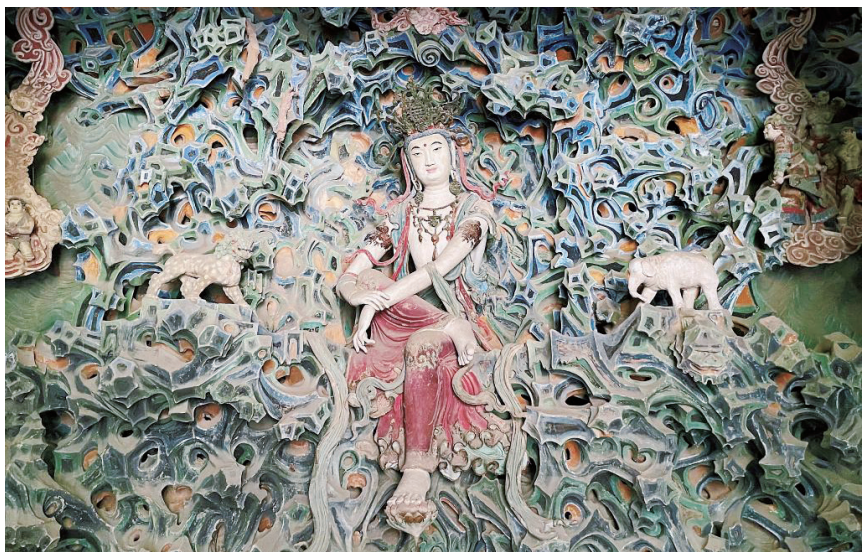
공연은 민요 합창 〈산노래 불러 당에 드리네〉로 막을 올렸다. 가수들은 민족복장을 차려입고 열창했다. 산동성의 〈기공산 단조〉, 강서의 〈커자의 아들딸 당을 향한 마음〉,

녕하의 〈룩반산에 당도한 홍군오빠〉와 같은 전국 각지의 특색 짙은 민요들이 모두 무대에 올라 현장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특히 섬서성의 박효강이 부른 〈동방홍〉은 섬복단조의 매력을 남김없이 보여주며 관중들의 환호를 불러일으켰다.

흑룡강성의 소수민족인 허저족 민가 무형문화유산 전승자인 우충매는 직접 창작한 〈허저신가〉를 불러 허저족의 행복한 생활을 노래했다.

강소성에서 온 연합은 “흑룡강에는 처음 와본다. 강소 민가 〈남편의 참군을 바라다〉를 준비했는데 전국 각지의 민요가수들과 함께 교류하는 이 활동을 통해 큰 수확을 얻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연이 끝난 후 관중 류명원은 “예전에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들었던 민요들을 오늘 현장에서 직접 들으니 신선한 충격이었고 감동이 배가되었다. 민요들은 우리 나라의 강대함, 민요들의 행복감을 전해주었다.”고 감상을 전했다. /동북넷



▲ 룽허사 마니전의 도좌관음